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2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0월 21일)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등 밝히며 월정사 탑돌이 스님들이 염주를 들고 부처님 가르침과 공덕을 노래하자 신도들도 뒤를 따라 등을 밝히고 탑을 돌며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강원도무형문화재 제28호 월정사 탑돌이다. 월정사탑돌이보존회는 11월 17일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앞에서 '월정사탑돌이 2018 전승발표회'를 개최, 사부대중 200여 명과 탑돌이를 시연했다. 사진은 스님들이 전승발표회에서 작법무를 펼치는 모습. **글=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월정사**

성전 편찬 본격화… '시대 눈높이' 화두

조계종 포교원 11월 21일 불교성전 전문연찬회 개최

사상 첫 종단 성전 편찬에
형식 · 내용 두고 입장 달라
용어 정립 · 친절한 해설 일치
디지털 성전 등 후속 요청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이 추진하는 첫 표준 불교성전 편찬의 본격화에 맞춰 새 시대 눈높이에 맞춘 성전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불교성전 편찬을 위한 전문가 연찬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내 불교성전으로 판매되는 도서는 총 13종 16권으로 1972년 동국대 역경원 〈불교성전〉이 가장 공신력 있는 판본으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초판 발행 후 40년이 흘러 재번역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다. 조계종에서 종단 표준 불교성전을 발간하는 것은 처음으로 조계종은 관련예산 1억 8300만원을 배정, 2018년 역점 사업으로 성전 편찬을 진행하고 있다.

정전 · 요전 등 형식 두고 논쟁

현재 사상 첫 종단본 불교성전 발간에 방향을 두고 입장이 다양한 입장이 나오고 있다. 경전의 내용을 모두 담는 정전 형식과 발췌하여 주제별로 편집이 가해지는 요전 등 형식에 대한 방향 제시다.

이중표 전남대 교수는 "그동안 요전은 종단뿐만 아니라 불교 각계에서 많이 나왔다. 종단본 불교성전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정전이 되어야 한다. 정전으로 본다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경을 짜깁기 하는 형식이 아니라 성전에 실릴 경전을 선발해 총지를 모아야 한다"며 "종단이 선불교를 표방한다면 선어록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회의원 주경 스님도 "불교성전은 불교 최고 법전이다. 불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기본적으로 담아야 한다. 아주 오래 긴 시간, 기독교 성경과 같이 수백 · 수천년 이상 가야 한다. 부처님 경, 율까지만 오롯이 담는 성전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그 외의 내용은 차후 과제로 삼았으면 한다"며 정전 형식에 손을 들었다.

이에 반해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요전 형식으로 대중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 스님은 "성전은 비불자가 봐도 소장하고 싶어야 한다. 초심자는 물론, 불자와 비불자 등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하며 보다 쉽고 편한 문장을 선택해야 하며, 주제별 요전 등 방식이 대중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前 동국대 역경위원 이미령 박사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박사는 "잠언집 형식의 요전과 정전 두 권이 바람직하다"며 "기독교가 〈성경〉〈성서〉라는 이름을 갖고 있듯이 조계종이 가려 뽑은 정경(正經)을 추리는 작업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시청각 불교성전도 필요

불교성전은 시대에 맞는 포교전법의 근간으로 삼기 위해 발간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다. 특히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성전의 필요성도 현장에서 제기됐다.

정승석 동국대 교수는 "성전이 신행과 수행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대중들이 읽기 좋게 만들어야 한다. 현대의 언어와 친숙한 풀이 등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신행활동에 있어 성전이 보기 좋은 비치용 경전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책을 오래 읽지 못하는 세대, 모바일 세대에 맞춰 디지털 성전 등도 함께 추진 했으면 한다"고 바램을 피력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현석 스님은 "성전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경전이 아니라 기존 경전을 편역해 출판하는 것"이라며 "만해 스님의 불교대전 등 이미 주제별 재구성한 것들이 있다. 시대에 맞는 각주나 풀이가 아쉬운 만큼 적절한 해설도 가미해 대중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청에 불교경전과 정보 등을 망라한 M라이브러리 사업을 추진한 포교원에서는 불교성전을 향후 모바일 버전 등으로도 제작할 계획도 밝혔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신행을 바르게 이끄는 불교성전이 필요하다"며 "불교성전이 제대로 보급, 활용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성전, 청년층 모바일 성전 등도 필요하다. 성전 편찬 후속 작업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국 선원 불퇴전 정진 다진다

조계종 · 태고종, 11월 22일부터 3개월간 동안거

불기2562(2018)년 무술년 동안거가 결제됐다. 깨달음을 찾아 전국 선방에 방부를 들인 운수납자들은 3개월간 불퇴전의 용맹 정진에 들어갔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11월 22일 동안거 결제를 맞아 결제법어를 통해 "이번 안거에는 대오견성 하겠다는 태산 같은 용맹심과 불퇴전의 각오로 매일매일 새롭게 발심과 신심을 다져야 할 것"이라며 "화두참선은 오래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챙겨도 뼈골에 사무치는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와 씨름하듯 챙기고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동안거는 결제 전날인 21일 저녁, 결제대중이 모인 가운데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龍象榜)을 작성하고, 결제 당일 오전 사찰별로 방장 스님 등의 결제법어를 청한 뒤 3개월간 참선 정진에 들어갔다.

조계종에서는 안거마다 전국 100여 선원서 2000여 명의 수좌들이 방부를 들여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사찰 스님과 신도들도 이 기간 동안 함께 정진한다.

태고종 또한 이날부터 동안거 결제에 들어갔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결제에 앞서 "납자의 본분인 화두공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바깥 경계에는 잠시 눈을 감고, 내관에 집중해 석 달 후에는 출격장부의 모습으로 대면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종정 및 총림 방장 법어 A6면〉

불교출판대상 '의상구법 건축순례' 올해 불교음악인상 반영규 작사가

출판상 12월 12일 · 음악상 12월 4일 시상식

제15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김승제의 〈의상대사 구법 건축순례행기〉(조계종출판사)가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과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는 '제15회 불교출판문화상' 선정 결과를 11월 22일 발표했다.

대상은 김승재의 〈의상대사 구법 건축순례행기〉가, 우수상에는 김성구의 〈아인쉬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 · 이진경의 〈설법하는 고양이와 부처가 된 로봇〉이 선정됐다. 수향번역상에는 〈번역으로서의 동아시아〉가, 붓다북학술상에는 김영진의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이 이름을 올렸다.

입선에는 〈선원일기〉 · 〈수미 런던의 가족을 위한 명상〉 · 〈스님의 남자친구〉 · 〈팔만대장경 1, 2〉 · 〈송시의 선학적 이해〉 등이 선정됐다.

대상 및 우수상은 출판사와 저자가 공동으로 수상하며 대상 상금은 1,000만원(출판사와 저자 각 500만원), 우수상은 400만원(출판사와 저자 각 200만원)이다. 수향번역상은 출판사와 번역자에게 각각 100만원, 붓다북학술상은 출판사와 저자에게 각각 100만원, 올해의 불서에 선정된 나머지 5종의 도서는 출판사에게 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2일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와 함께 불교음악인들을 격려하고 치하하기 위한 '제4회 불교음악상' 수상자도 11월 22일 발표됐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현법)는 '제4회 불교음악상' 불교음악인상에 에서는 반영규 작사가(前 불교음악협회장)를, 불교음악신인상에는 한정일 지휘자를 선정했다.

반영규 작사가는 1970년대부터 '자비의 소리' 포교지를 발행하며 불교포교에 앞장섰으며, 글과 음악을 통해 척박한 불교음악계에 찬불가를 보급했다. 부처님오신날 최초 기념음악회 및 예술제 등을 시작으로 여러 공연기획과 연출을 진두지휘했다.

한정일 지휘자는 현재 약사사와 기원사 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으며, 불교합창단의 상호교류와 불교음악발전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18 제5회 신작찬불가 공모사업' 결과도 발표됐다. 올해 공모 수상작은 '내 마음에 눈 내리면(작사: 곽영석 작곡: 이순희)', '밝은 달(작사: 홍은지 작곡: 홍은지)' 등 총8편이다.

불교음악상 및 신작찬불가 공모 시상식은 12월 4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양력	음력	요일	법문하실 품	법사
12.07	11.01	금	입재법문/화엄경 현담	방장스님/무비스님
08	02	토	세주묘엄품/여래현상품	법산스님
09	03	일	보현삼매품	자광스님
10	04	월	세계성취품	동훈스님
11	05	화	화장세계품	경성스님
12	06	수	비로자나품	종곡스님
13	07	목	여래명호품/사성제품	연각스님
14	08	금	광명각품/보살문명품	도일스님
15	09	토	정행품/현수품	보선스님
16	10	일	승수미정상품/수미정상게찬품	보광스님
17	11	월	월하스님 다례(오전)/십주품	월하스님 추모다례/혜철스님
18	12	화	범행품/초발심공덕품	용학스님
19	13	수	명법품	수불스님
20	14	목	불승야마천궁품/야마천궁게찬품	종호스님
21	15	금	십행품/십무진장품	심산스님
22	16	토	승도솔천궁품/도솔천궁게찬품	지안스님
23	17	일	십회향품 1-5	수진스님

1주차 2주차 3주차

제48회 통도사 화대 엄법 산림 회

양력	음력	요일	법문하실 품	법사
12/24	11/18	월	십회향품 6-10	정인스님
25	19	화	십지품	선지스님
26	20	수	십정품	정안스님
27	21	목	십정십통품/십인품	무애스님
28	22	금	아승지품/여래수량품	현진스님
29	23	토	제보살주처품/불부사의법품	도문스님
30	24	일	여래십신상해품/여래수호공덕품	각성스님
31	25	월	벽안스님 다례(오전)/보현행품	벽안스님 추모다례/우진스님
1/01	26	화	여래출현품	혜남스님
02	27	수	이세간품	시명스님
03	28	목	입법계품(휴사우바니까지)	반산스님
04	29	금	입법계품(비목구사~바산바연주야신)	상우스님
05	30	토	입법계품/회향법문	방장스님

4주차 5주차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천년도량에서 禪 / 敎 / 律의
큰 스승들을 모시고 화엄산림을 봉행하오니
법의 자리에 함께 하시어 복혜구족 인연 되소서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화엄산림 기간 - 총 30일

입 재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부터
회 향 2019년 1월 5일 토요일 까지
장 소 통도사 설법전 에서

동참금

영 가 동참금 2만원(1위당)
온산림 동참금 20만원
반산림 동참금 10만원

교통편

대중교통 부산 노포동 종합터미널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동대구 성남고속터미널
승용차 경부 고속도로 통도 IC 통과 후 통도사로 진입

문의

기도접수처(화엄전) 055-381-1288
팩스 055-372-7010
홈페이지 www.tongdosa.or.kr